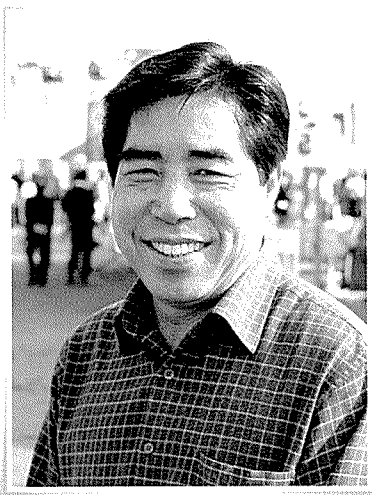




논산딸기축제를 성공리에 마친 논산시지부

몽치면 못할 것이 없다

(사)대한제과협회를 구성하고 있는 전국의 지회지부는 각 지역적 특성에 맞는 운영으로 회원들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규모가 작은 지부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 최대 행사인 논산딸기축제에 참가해 훌륭하게 부대행사를 치러낸 논산시지부회원들의 활약상을 소개한다. 글:김영주 기자·사진:주현진



박용순 논산시지부장

지난 4월 8일부터 10일까지 국내 최대 딸기 생산지인 논산에서 2005 논산딸기축제가 열렸다. 논산천 둔치 야외무대에서 열렸던 이번 축제에는 딸기의 탐스러운 모습을 시샘이라도 하듯 봄비가 찾아들었다. 내리는 빗물에 질퍽거리는 바닥은 오랫동안 축제를 준비한 관계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었다. 이런 와중에 축제기간 내내 비가 내리든, 땅이 질퍽거리든 상관하지 않고 신발과 바지가 흙투성이 되는 줄도 모르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다. 부스 사이를 바쁘게 오가는 이들은 이번 축제에서 단연 눈길을 끌었던 부대행사 '사랑의 딸기케이크 만들기'와 '논산 딸기케이크 경연대회'를 진행한 논산시지부 사람들이다.

논산시지부의 새로운 도전

올해로 3회째를 맞은 논산딸기축제에 논산시지부는 이번에 처음 참여했다. 논산딸기축제가 개최되기 두 달 전쯤 논산시청은 이번 행사에 논산시지부가 참여하는 것이 어떨것냐는 제안을 했다.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지만 '지역 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이자 '제과제빵을 보다 많은



1 논산딸기축제에 참가해 성황리에 행사를 마친 논산시지부 회원들. 2 논산딸기축제의 부대행사인 '사랑의 딸기케이크 만들어가기'는 논산시지부 회원들이 모두 나와 직접 관람객들에게 만드는 것을 선보이고 케이크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었다. 3 불우이웃돕기를 통해 지역사랑을 묵묵히 실천하고 있는 논산시지부는 감사패를 수상했다. 4 사무실을 경매로 잃어버리고 새로 이사 온 사무실. 좁고 불품없는 곳이지만 논산시지부 회원들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공간이다.

“ 곳은일이건, 좋은일이건 언제나 회원들과 함께 울고 웃는 논산시지부는 규모는 작지만 회원들의 사랑과 열정만큼은 그 어떤 곳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로운 지부이다. ”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여긴 논산시지부는 참여를 결정했다. 하지만 축제가 고작 두 달 남짓밖에 남지 않는 상황에서 큰 이벤트를 준비하는 것은 무척 어렵고 고된 작업이었다.

“이런 행사를 처음 진행하기 때문에 스케줄을 잡는 것부터 행사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하는 모든 과정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회원 모두가 함께 도와주었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행사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논산딸기축제 행사진행을 총괄한 논산시지부 전일진 총무는 논산시지부 회원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이 행사를 무사히 치러낼 수 있게 한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축제를 준비하면서 논산시지부는 그 어느 때보다 단결된 모습을 보였다. 회원들은 두 달 동안 저녁마다 함께 모여서 축제에 대해서 토의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들 처음하는 일이라 고생스럽고 힘들었던 시간이었지만 누구하나 힘들다고 투덜거리는 사람 없을 정도로 화기에애한 분위기에서 일을 진행시켰다.

드디어 논산딸기축제의 화려한 막이 오르고 논산시지부가 최선을 다해 준비한 부대행사가 열린 4월 9일과 10일 이틀 동안 임원 뿐아니라 회원들까지 행사장을 누비고 다녔다. 논산시지부의 회원들은 대부분 직접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1인 슈프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어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곧 가게문을 닫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틀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꺼이 나와 협회일에 참여하는 봉사를 아끼지 않았다.

열성을 다한 논산시지부 회원들의 노력 덕분에 '사랑의 딸기케이크 만들어가기'는 연일 관람객들로 넘쳐났고 2003년 20명의 출전 선수가 전부였던 '논산 딸기케이크 경진대회'는 80여 명의 선수들이 참여하는 큰 대회로 거듭났다. 처음으로 준비한 행사라 아쉬움이 더 많다고 전하는 논산시지부 회원들은 내년을 비롯해 앞으로 논산딸기축제 때마다 더 멋진 행사 내용을 보여줄 것이라고 다짐했다.

회원 화합이 지부의 최고 자산

논산시지부는 2년 전에 몇 년 동안 지부 사무실로 운영하던 건물이 건물주의 부도로 경매에 넘

어가는 바람에 보증금을 몽땅 날리고 이사 비용만 겨우 받아 현재 지부 사무실로 옮겼다.

박용순 지부장은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속상하다고 전한다.

“지부 사무실을 잃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서 회원들 모두 가슴 아파했습니다. 하지만 회원들은 헌신적으로 협회일에 참여해서 다시 협회 살림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려움을 겪었지만 논산시지부 회원들 모두 일심동체가 되어 힘을 모아서 지부 사무실을 새롭게 개설할 예정으로 열심히 고심하고 있다.

논산시지부는 충청남도에서 팀워크가 좋기로 유명하다. 해마다 충청남도에 있는 각 지부들이 모여 열리는 체육대회에서 논산시지부는 줄곧 우승을 놓치지 않고 있다. 이 모든 것이 회원들의 열성적인 참여없이는 힘든 일이다.

언제나 열성적인 회원들을 위해 논산시지부는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인 초청 세미나를 봄과 가을, 1년에 2번 개최한다. 이 세미나는 회원 참여율이 90% 이상 될 정도로 인기가 높다.

곳은일이건, 좋은일이건 언제나 회원들과 함께 울고 웃는 논산시지부는 규모는 작지만 회원들의 사랑과 열정만큼은 그 어떤 곳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로운 지부이다. 🍪